

어메니티자원 분석을 통한 어촌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안계복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Revitalize Fishing Villages through the Analysis of Amenity Resources.

Ahn, Gye-bo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 Among the towns of Gyeongju and SamCheok on which I have surveyed about their amenity resources in 2010, I chose 5 towns that are close to the Eastsea to analyze the data and to devise how to revitalize fishing villag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lthough Yangbuk-myeon is geographically located to have all the aspects of fishing village, farming village, and mountain village, the resources utilized are mainly that of mountain village. There is need to utilize actively historical amenity resources like Munmudaewangreung of Yangbuk-myeon.

2. The use of amenity resources of Yangnam-myeon is centered on farm and mountain village. But if they utilize amenity resources of fishing villages of Eupcheon-port's neighborhood, it would be a big help for the revitalization of Yangnam-myeon which is depressed.

3. The fishing mackerels on boat of Gampo-eup Jeonchonri is a successful example of utilization of fishing village's amenity resources. However, there is need to utilize amenity resources of farming and mountain villages that are near to Gampo-eup, so it can attract visitors to stay longer. Particularly, the fishing villages of the East coast must develop 4 seasons program connecting the amenity resources of neighboring farm and mountain.

4. Geundeok-myeon is a town where they made the amenity resources of fishing village into tourist attractions. But considering the wide gap between Geundeok-myeon and neighboring fishing, farming and mountain villages that cannot get the advantage of development, there has to be some inducement in policy so every town can be developed evenly.

5. After analyzing how the towns utilize the amenity resources to make them tourist attraction, it is shown that Geundeok-myeon of SamCheok is the best town which is using fishing village's amenity resources well, and Yangnam-myeon and Yangbuk-myeon of Gyeongju are scarcely using them. About types of tourist attraction, the programs with scenic view of fishing village, with water-sport, and with Eco-experience are needed to improved.

Key words : mountain village, Gyeongju, SamCheok, development, fishing village, farming village, amenity resources.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어촌관광 개발은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안고 있다. 횃집 중심의 획일적인 개발을 한다면 어촌의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한 개발계획이 되지 못한다. 또한 해당 어촌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경관, 문화, 역사적 어메니티(amenity) 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조로운 개발계획으로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 또한 홍장원(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에 추진되었던 농어촌 지역의 관광사업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일회성사업으로 전

Corresponding Author : Ahn, Gye-Bog
Tel : 053-850-3190
E-mail : gbahn@cu.ac.kr

락하거나, 일반관광지와 차별성 없이 상업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농어촌 고유의 모습을 훼손시켰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원인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실정에 맞는 모델이나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이 정착되지 못한 채 지원정책들이 추진되거나 혹은 마을주민들이 체험마을을 운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촌의 어업 외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2001년부터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어촌관광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어촌 주민들은 어촌관광에 대한 이해도 낮고, 어촌관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능력도 약하다. 따라서 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촌지역의 1차 산업 뿐만 아니라 2차, 3차 산업의 복합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어촌관광은 어촌지역의 복합산업 공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이승우, 홍장원, 이윤정 2008).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안의 어촌마을은 어촌마을 옆에 농촌마을이 있고, 농촌마을 옆에 산촌마을이 있다. 이와 같은 공간구조는 태백산맥이 동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감포읍 전촌항구와 인접한 전촌리는 어촌마을이지만, 전촌리로부터 내륙으로 접한 전동리는 농촌마을이며, 전동리 안쪽에 있는 호동리는 산촌마을이다. 따라서 어촌관광개발은 한정된 어촌의 어메니티적 자원만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농산어촌적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어촌의 활성화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어촌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어촌이 있는 바다는 어촌주민의 주요한 생산공간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어메니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어촌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자원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마을로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어촌은 어업인의 시각에서 바라보아도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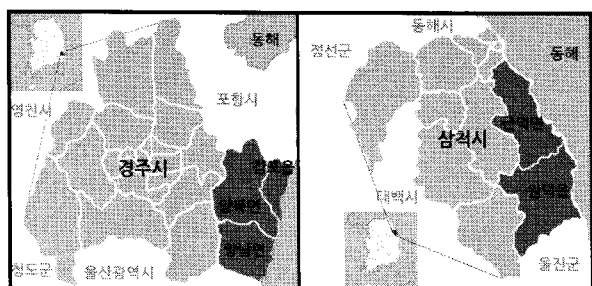


Figure 1 연구대상지(5개 읍면).

람객들의 유치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다.

그런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실시되면서 기존 어촌마을이 갖고 있던 정주기능과 생산기능에 관광기능이 추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광기능의 도입은 이중성을 갖는 정책이다. 일면 농산어촌의 뛰어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촌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통합정책수립의 부족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어메니티 종합 기반기술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6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7개 읍면과 강원도 삼척시 5개 읍면을 조사하였다. 그 가운데 동해안과 접하고 있는 5개 읍면(경주시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과 삼척시 근덕면, 원덕읍)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원을 분석하여 어촌마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지역인 5개 읍면은 서로 다른 어메니티 자원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호비교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 5개 읍면에 대해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1737개의 자원을 조사하였다. 이 자원을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재조정된 다음 빈도분석, 자원 분포도 분석, 관광자원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메니티 자원의 재조정은 본 연구와 큰 상관이 없는 동물자원과 환경관리시설 자원을 제외시켰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마을경관, 마을회관과 같은 자원들도 제외시켰다. 이 자원들은 마을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김성귀 등(2001)이 분류한 7가지의 어촌관광 유형에 따라 5개 읍면을 분석하였다.

II. 연구사

어촌관광은 1990년대 이후 정부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1994년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어촌관광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 되었다(이승우 홍장원 이윤정 2008). 농림부(1996)는 전국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어촌관광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어촌관광지 유형을 ① 어항 중심, ② 해수욕장 중심, ③ 낚시터 중심, ④ 종교·문화자원으로 구분하여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황기영·이승우(2000)는 어촌관광개발이 주민들의 공동재산과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성귀

등(2001)은 어촌관광의 유형을 해수욕형, 바다낚시형, 해양스포츠형, 생태체험형, 어촌경관/휴양형, 어촌역사문화형, 수산물구매/시식형으로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한 개발단면을 사례와 함께 조사하였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맞추어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임형백(2001)은 어메니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하여 연구한 바가 있으며, 조영국 등(2002)은 농촌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에 대하여 연구한 바가 있다. 박재철(2009)은 전북 순창군을 대상으로 자원의 분포적 특징에 대하여 연구한 바가 있으며, 오윤경 등(2007)은 전국적인 차원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개괄적인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어메니티 평가에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박창석 등(2002), 장은숙 등(2002), 임창수 등(2007), 안명준 등(2008), 오윤경(2008) 등의 연구가 있다. 자원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여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단순히 자원의 숫자만 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상현 등(2010)은 지니계수를 통한 농촌어메니티 자원 집중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도 집중화에 대한 문제해결 수단이 되지만,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이 있는 자원들을 미리 제거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메니티에 관한 연구에서 어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다중공선성이 있는 자원들을 미리 제거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III. 분석 및 결론

1. 어촌관광유형과 어메니티자원 분류체계의 관계성 분석

동해안과 접하고 있는 읍면의 어메니티자원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어촌개발계획이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어촌관광유형과 일치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Table 1을 만들었다.

김성귀 등(2001)은 어촌관광유형을 7가지로 나누었다. 농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조사의 분류방식을 어촌관광유형과 비교해 보면 수산물 구매시식형, 바다낚시형, 그리고 해양스포츠형이 모두 시설물자원이자, 나머지 유형은 농진청의 자원 분류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그 반면에 해수부(2001)의 자원분류 방식은 자원을

너무 큰 범주로 나누었기 때문에 어촌관광 유형과 일치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농진청의 어메니티 자원분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어촌관광 유형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재조정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Table 1 어메니티자원 분류체계와 어촌관광유형과의 관계성

김성귀 등(2001) ¹⁾	농촌진흥청	해수부(2001) ²⁾
어촌 관광 유형	어메니티 자원 분류	자원의 분류
수산물 구매시식형	시설물자원	사회자원
바다낚시형	시설물자원	
어촌경관형	지형자원, 경관자원	자연자원
어촌역사문화형	전통자원, 공동체자원	문화자원
해수욕형	지형자원	
해양스포츠형	시설물자원	
생태체험형	식물자원, 동물자원	
-	환경오염자원	산업자원

2. 자원조사결과 및 분석

2010년 농진청에 조사한 어메니티자원의 분류항목과 자원을 예시 해 놓은 것이 Table 2이다. 이번 연구에서 큰 영향이 없는 동물자원, 환경관리시설 자원, 마을경관 자원 등의 자원을 제외시켰다. 이렇게 조절해 보면 양남면의 경우 49개 경관자원이 8개의 경관자원으로 줄고, 근덕면의 경우 63개 경관자원이 35개의 경관자원으로 줄어든다. 즉 분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원을 제외시키면 5개 읍면간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설물자원 가운데에는 마을회관이라는 자원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자원이다. 또한 분석에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학교, 쉼터, 하수종말처리장, 신협, 수협 등의 자원을 제외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정리하였을 경우 가장 차이가 나는 곳이 근덕면과 양북면이다. 근덕면은 149개의 시설물자원이 40개(27%)로 줄어드는 반면에, 양북면은 101개 시설물자원이 8개(8%)로 줄어든다. 경주 양북면이 삼척 근덕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시설물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자원 가운데 마을표적도 행정리가 많아지는 곳에 자동적으로 많아지는 자원이기 때문에 제외시키며, 또 분석에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경로잔치도 제외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정리하였을 경우 가장 차이가 나는 곳이 양북면과 감포읍이다. 양북면의 경우 67개의 공동체자원이 27개(40%)로 줄어드는 반면에, 감포읍은 47개

Table 2 2010년 동해안 어메니티 자원 수 조사표

	경주시			삼척시		자원 예시(제외 자원)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근덕면	원덕읍	
수 자원	4	6	6	8	3	저수지, 댐, 하천, 연못, 우물
지형자원	7	5	15	33	15	절벽, 바위, 암반, 습지
식물자원	25	36	29	33	18	소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포구나무 등
동물자원	1	8	9	0	4	팽이갈매기, 꿩, 딱따구리, 부엉이 등
환경관리시설	2	9	4	10	0	축사, 공장
전통자원	18	30	64	37	50	제단, 성황당, 제실, 사지, 사찰, 불상, 문화재
특산자원	17	17	31	5	21	참전복, 미역, 오징어, 가자미, 쌀, 산나물,
경관자원	41(17)	49(8)	52(12)	63(35)	44(14)	해안경관, 농업경관, (마을경관, 주거지경관)
시설물자원	80(22)	90(12)	101(8)	149(40)	123(35)	(마을회관, 학교, 쉼터, 하수종말처리장, 신협, 수협 등)
공동체자원	47(8)	59(11)	67(27)	86(24)	95(34)	작목반, 1사1촌, 체험마을, 자연휴양림, (마을표석, 경로잔치)
소 계	242	309	382	429	375	

의 공동체자원이 8개(17%)로 줄어든다. 감포읍이 양북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공동체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경주시 3개 읍면 어메니티자원 분석

경주시에서 동해안과 접하고 있는 감포, 양남, 양북 3개 읍면에 대한 어메니티자원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3은 3개 읍면의 전통자원을 비교하기 위해 구글어스를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도면에 표시하였다. 많은 전통자원들이 성황당이기 때문에 해변을 따라 위치하거나 계곡을 따라 마을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① 양북면 : 양북면은 여타 읍면에 비해 전통자원이 특히 많다. Figure 3 분포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통자원들이 내륙과 해변에 밀집해 있다. 양북면의 전통자원들은 삼국을 통일한 문무수증대왕릉, 감은사지, 장항리사지, 기림사, 골굴사, 토함산 등의 뛰어난 신라시대 유적들이 많은 곳이다.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한 신라의 동해구(東海口)인 곳(안계복 2005)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들을 특성화시키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자원들이 양북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점마을을 조성하여 이 마을을 중심으로 호국역사탐방로 코스를 만들어 연계시키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거점 확보방안은 신라시대 고찰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양북면은 전통자원(64)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특산물(쌀, 산삼, 산딸기, 산약초)과 많은 지형자원(15)과 공동체자원(27)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원의 연계성과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북면 두산리 27가구가 참여하는 전통 신라 손 명주마을(Figure 4), 권이리와 용동2리에서 재배되고 있는 가리촌 산딸기, 범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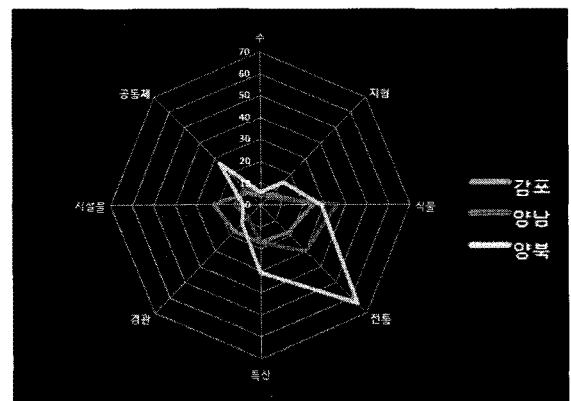


Figure 2 경주시 어메니티자원의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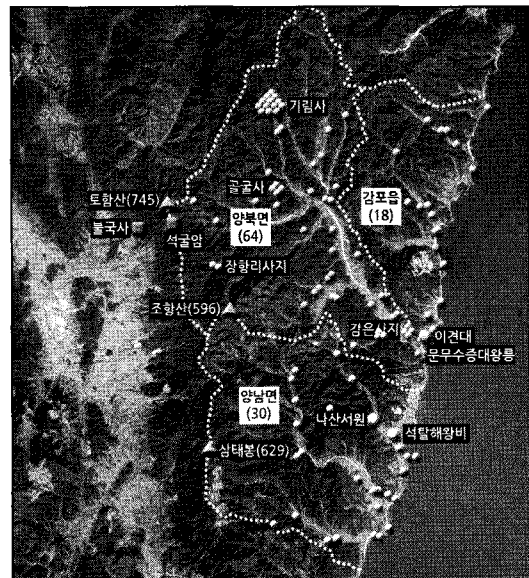


Figure 3 경주시 3개 읍면 전통자원의 분포도.

리 산양 산삼마을³⁾, 토함산 자연휴양림⁴⁾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의 연계성이 나타나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양북면의 공간구조가 「어촌-농촌-산촌」의 구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은 다분히 산촌 중심적이다. 양북면의 해안에 있는 수중대왕릉이나 감은사지와 같은 역사적인 어메니티자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현행 산촌적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어촌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

② 양남면 : 양남면은 경상북도의 가장 동남쪽에 있는 면인 동시에, 경주시에서도 가장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면으로 대도시로부터 접근성이 나쁘다. 양남면(309)은 양북면(382)보다 어메니티자원의 숫자가 적다. 또한 양남면의 어메니티 자원 가운데 조금 많아 보이는 자원이 전통자원으로 49개나 되지만, 이 가운데 자원활용성이 낮은 동계단지나 문중 재실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그런데 양남면에는 읍천항과 울포항이라는 2개의 항구도 있으며, 나아해수욕장과 관성해수욕장이라는 어메니티자원도 있으며, 해안선은 절리가 발달하여 황새바위라는 수려한 자연경관자원도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촌적 어메니티자원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면이다. 양남면의 공간구조도 「어촌-농촌-산촌」의 구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촌마을의 성격을 가진 효동리의 경주연꽃마을⁵⁾와 신대리의 산에들레 정도 밖에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Figure 4). 양남면의 읍천 앞바다는 동해에서 해수온이 가장 높아 사철 감성돔, 돌돔, 벵에돔이 살고 있으며, 바다 밑 지형은 단층이 발달해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읍천항을 바다낚시형으로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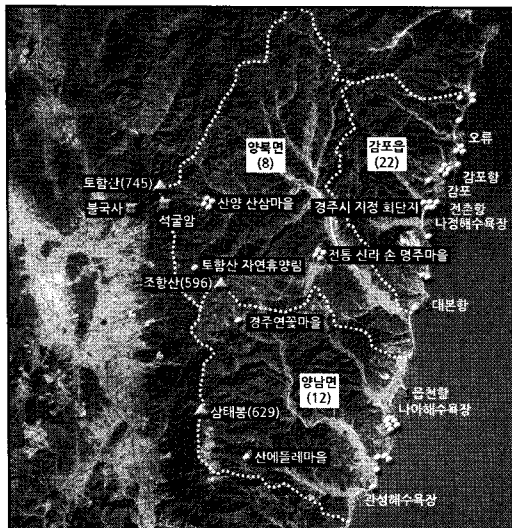


Figure 4 경주시 시설물자원의 분포도.

양남면의 어메니티자원 활용은 현재 농산촌중심적이다. 그러나 읍천항 일대에 퍼져 있는 자연적, 어촌적 어메니티자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현행 산촌적프로그램과 연계시킨다면 침체된 양남면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③ 감포읍 :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된 감포읍의 243개 어메니티자원은 양북면(382)과 양남면(309)에 비해 볼 때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Figure 2의 빈도분석 방식형도를 보면 감포읍은 시설물(22)과 경관(17)측에서 자원이 밖으로 돌출하여 이 부분이 양남, 양북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 시설물자원 분포도를 보면 감포읍은 해변 어촌쪽으로 어메니티자원이 분포하는 반면 양북면은 산촌쪽에만 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감포읍은 전촌리에 「경주시 지정 경주회단지」를 비롯한 여타 시설투자(Figure 6)가 많았다. 감포읍이 여타 읍면보다 경관자원이 많은 이유는 감포항, 전촌항, 대본항을 비롯하여 수려한 해안경관자원(Figure 5)이 많기 때문이다.

양남면과 양북면은 산촌적 성격을 가진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감포읍은 어촌적인 어메니티자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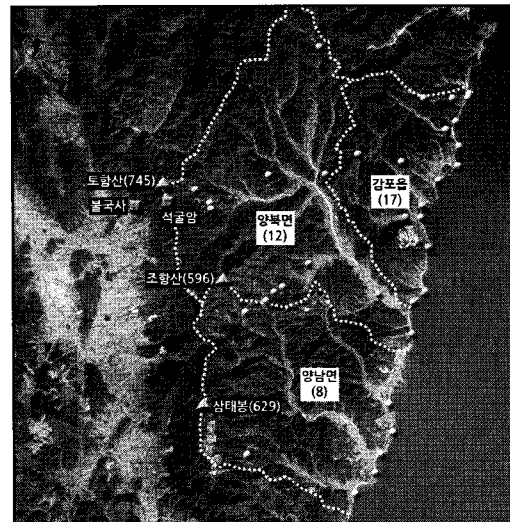


Figure 5 경주시 경관자원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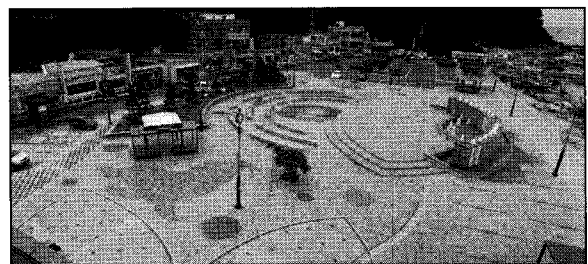


Figure 6 감포읍 전촌항 경주시 지정 경주회단지 앞.

활용하고 있다. 그 성공적인 추진 사례가 해양수산부로 부터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추진된 전촌향 리모델링 공사⁶⁾로 2007년부터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촌향 한쪽에 전망대, 주차장, 야외공연장, 야간조명, 바다분수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제까지 어촌마을경관은 천편일률적이라 장소감이 없었지만 전촌향은 새로운 어촌의 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즉 「바다-어항-수변공원-회타운-마을-농촌」이라는 새로운 구조안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전촌향은 고등어선상낙시의 전초기지다. 전촌 고등어선상낙시는 2003년 7척으로 시작하였지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자 현재는 40척에 연간 10만여명이 이용에 20억원 이상의 어업 외 소득을 올리는 전국에 유일한 고등어 선상낙시형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경주시 가운데 동해안과 접하고 있는 3개 읍면의 어메니티 자원을 분석해 본 결과 양남면과 양북면은 감포읍처럼 어촌적 어메니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 반면에 감포읍은 농산촌적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대부분 바다 근처에 있는 어메니티자원만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계절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특히 동해안은 어촌과 인접한 농산촌지역의 어메니티자원까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 계절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삼척시 2개 읍면 어메니티자원 분석

삼척시에서 동해안과 접하고 있는 근덕면과 원덕읍에 대한 어메니티 자원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① 근덕면 : 근덕면은 앞서 검토하였던 경주시의 3개 읍면보다도 어메니티자원이 지형, 경관, 시설물에서 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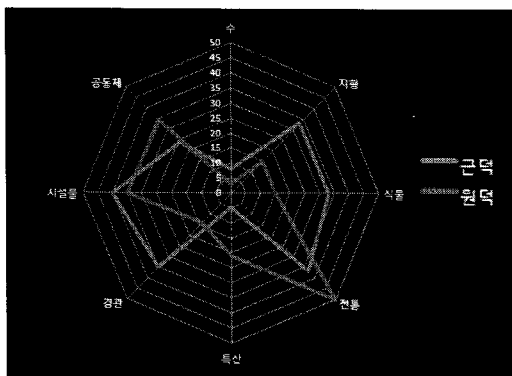


Figure 7 삼척시 어메니티자원의 빈도분석.

히 많다. Figure 5와 Figure 8을 비교해 보면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자원의 밀도가 다르다. 또한 인접한 원덕면보다 지형, 경관, 식물, 시설물 어메니티자원이 많다(Figure 7). 이것은 근덕면이 수려한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시설물에 투자를 많이 한 까닭이다.

근덕면은 동해안의 맑은 물과 아름다운 해안선, 항구 4개소, 해수욕장 11개소, 해수욕장 뒤편에 펼쳐진 송림 등이 중요한 어메니티자원들이다. 상맹방 1리의 청정조개마을, 2002년부터 시작한 장호리의 어촌체험마을, 그리고 민박 시범마을 등은 이러한 근덕면의 중요한 어메니티자원들을 활용한 체험마을들이다.

장호리 어촌체험마을은 2007년 전국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에서 최수우상을 받을 만큼 활성화된 마을이다. 장호리에서는 가족과 연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고동잡이 체험, 투명키누 생태 체험, 바다 레프팅 체험, 통발 체험, 스노클링 체험, 어업생활 체험, 창경바리, 맨손 물고기 잡기 등을 피서철에 맞추어 축제행사와 함께 펼치고 있다.

「삼척 해양레일바이크」는 근덕면의 수려한 해안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다. 삼척시에 의하면 2010년 7월 20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해양레일바이크는 근덕면 궁촌리~용화리 사이 5.4km 해안절경지대를 연결한 위락시설로, 3개월만에 관광객이 14만명을 넘고, 탑승료 수입도 11억원을 넘어섰다. 삼척시는 피서철에 이어 단풍철에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풍철 연계 관광 추진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홍보와 코레일 및 하이원리조트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Figure 8 삼척시 경관자원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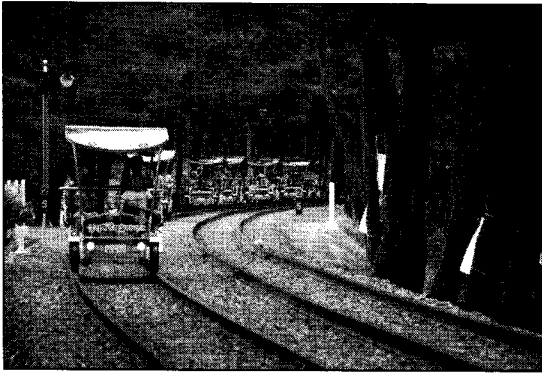


Figure 9 삼척시 근덕면의 대표적인 자원인 해양레일바이크.



Figure 10 궁촌2리 어메니티 자원.

이상과 같은 장호리 체험마을과 해양레일바이크의 운영은 어촌마을을 활성화시킨 성공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해안에 위치한 어촌 마을들이 활성화 되면서 어촌마을과 내륙으로 인접한 농산촌마을의 상대적 허탈감은 심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양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는 곳에 인접한 궁촌2리다. 궁촌2리는 십여년전 산불이 나기 전에는 송이 채취로 농외소득이 많았지만, 산불 이후에는 소득원이 없어졌다. 산불 이후 산나물 생산이 많아져 산나물을 채취하지만 소득금액으로는 송이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 강원도가 시행하는 새농촌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뗏목체험장, 캠프장, 수영장, 은어낚시터 등을 조성해 놓았지만 찾는 사람들이 없다. 궁촌2리가 가지고 있는 맑고 깨끗한 어메니티자원들은 농산촌체험마을로서의 적지임에도 인접한 어촌마을 때문에 방문자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례를 통해 볼 때 어촌의 활성화는 어촌과 인접한 마을을 함께 고려하는 농산어촌의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원덕읍 : 원덕읍은 근덕면 보다 특산, 전통, 그리고 공동체자원이 많다. 원덕읍의 특산자원은 냉·한류가 교차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어종과 고포미역이다.

고포미역은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최상품의 미역이었다. 원덕읍의 전통자원은 성황당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 가운데 호산리 해변가에 외따로 우뚝 솟은 해망산이 있는데, 이 산은 암석이 많고 기암 사이에 노송과 향나무가 자라고 있어 특이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산 정상부에는 천제단과 성황당, 암서낭(할매당)이 있어 마을 주민들이 매년 정월대보름에 성황제와 풍어제를 지내는 신성한 곳이다. 또한 갈남리에는 애바위에 얽힌 전설과 남근승배 민속을 어메니티자원으로 활용하여 해신당 생태공원과 남근조각공원 등을 조성하였는데, 연간 방문객이 30만명에 달하는 성공적인 사례다. 이 사례는 어촌의 전통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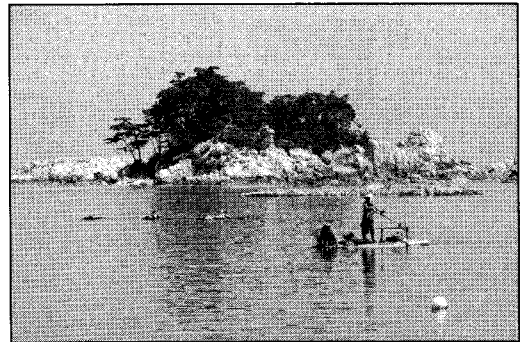


Figure 11 원덕읍 갈남리 월미도와 고포미역 채취.

3)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실태 분석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7가지의 어촌관광유형(김성귀 등 2001)으로 분석하였다(Table 3). 삼척시 근덕면은 어촌 어메니티자원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주시 양남면과 양북면은 어메니티자원을 가장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자원화 유형별로 보면 어촌경관형, 해양스포츠형, 생태체험형 프로그램을 늘려 나가는데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면, 먼저 수산물 구매시식형은 자연발생적으로 항구 뒤쪽에 있는 무질서한 횃집보다는 회센터, 회타운, 회단지, 대게센터 등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유형이지만, 그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그 특산물을 어떻게 구매시식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는 것은 5개면에서 모두 불가능하였다.

바다낚시는 모든 어촌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어촌 체험이지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곳은 감포읍 전촌리 고등어선상낚시다. 바다낚시는

Table 3 경주시와 삼척시 5개 읍면 관광자원화 실태 분석표

	경 주 시			삼 척 시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근덕면	원덕읍
수산물구매시식형	전촌 지정회단지 대본회타운	0	0	덕산어촌계 회센터	임원회센터 대계 센터
바다낚시형	전촌고동어선상낚 시	0	0	어촌체험마을프로그램	0
어촌경관형	0	0	0	해양레일바이크	0
어촌역사문화형	0	0	0	문화생태탐방로 삼척 수로부인길	해신당 생태공원 남근조각공원
해수욕형	해수욕장 3	해수욕장 2	해수욕장 1	해수욕장 11	해수욕장 5
해양스포츠형	0	0	0	덕산항 요트계류장	0
생태체험형	0	0	0	상맹방리 청정조개마을 장호리 어촌체험마을	0

방과제, 갯바위, 선상, 가두리어장 등 다양한 형태로 쉽게 도입이 가능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촌이 드물다. 현재는 낚시인들을 위한 안전장치나 관리시설을 도입하여 어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양남면 읍천항은 돛 바다낚시형으로 발전시킬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어촌경관자원을 활용한 근덕면의 해양레일바이크는 여타 읍면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어메니티 자원조사 결과 많은 읍면이 해안선을 따라 많은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메니티자원을 방임 상태로 놓아 두고 있다.

어촌역사문화형에는 원덕읍의 전설과 남근승배 민속을 활용한 것이 성공적 사례다. 그 반면에 양북면의 경우 수중대왕릉, 신라시대의 고찰들, 토함산 등과 같은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독특한 역사문화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읍면도 풍어제와 동제, 성황당과 같은 자원들이 풍부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

해수욕장형은 5개 읍면의 해수욕장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적계는 양북면의 1개소에서부터 많게는 근덕면의 11개소까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사람들이 몰리는 1계절형이라는데 단점이 있다. 이를 4계절형으로 변화시키려면 어촌마을과 인접한 농촌과 산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을 강구해야만 한다.



Figure 12 경주시 양북면의 산촌자원인 산딸기

해양스포츠형과 생태체험형은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스킨스쿠버, 요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 뿐만이 아니라 농산촌마을과 연계한 산악자전거, 등산, ATV, 서바이벌 등을 고려해야한다. 서남해안의 어촌은 갯벌생태체험이 활성화 되어 있는 반면에 동해안은 생태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동해안은 산촌과 어촌이 가깝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생태전문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주시 양북면은 어촌의 어메니티자원 보다는 오히려 산촌자원인 산삼, 산딸기, 산약초 등에 힘을 쏟고 있음은 생태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IV. 요약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어촌관광 개발은 획집 중심의 획일적인 개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어촌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경관, 문화, 역사적 어메니티(amenity) 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2010년에 어메니티자원을 조사한 경주시와 삼척시의 읍면 가운데 동해안과 접하고 있는 5개 읍면의 자료를 분석하여 어촌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주시 양북면은 공간구조가 「어촌-농촌-산촌」의 구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은 산촌중심적이다. 양북면은 우수한 전통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양북면의 해안에 있는 수증대왕릉이나 감은사지와 같은 역사적인 어메니티자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현행 산촌적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어촌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

2. 경주시 양남면의 어메니티자원 활용은 현재 농산촌 중심적이다. 그러나 읍천항 일대에 있는 자연적, 어촌적 어메니티자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현행 농산촌적프로그램과 연계시킨다면 침체된 양남면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나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생태전문가와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의 고등어선상낚시는 어촌적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성공적 사례다. 그러나 인접한 농산촌적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대부분 바다 근처에 있는 어메니티자원만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특히 동해안은 어촌과 인접한 농산촌지역의 어메니티자원까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4 계절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4. 삼척시 근덕면은 어촌의 어메니티자원을 성공적으로 관광자원화 시킨 면이다. 그러나 개발의 이익을 함께 받지 못하는 인접한 농산촌마을의 괴리감이 크다. 따라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인접한 농산어촌과 함께 연계한 계획이 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5. 삼척시 원덕읍은 남근승배 민속이라는 어메니티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6.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한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삼척시 근덕면이 어촌의 어메니티자원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주시 양남면과

양북면은 어메니티자원을 가장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자원화 유형별로 보면 어촌경관형, 해양스포츠택형, 생태체험형 프로그램을 늘려 나가는데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지원으로 이루어진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의 결과물 중 일부를 활용하여 2010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1) 김성귀, 홍장원, 박상우(2001),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 주2) 해양수산부(2001)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주3) 2010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
- 주4) 1997년 7월 개장
- 주5) 총 1.6ha 규모의 연꽃 체험장과 식품가공시설, 온실 등의 설비가 있다. 연꽃 온라인 혹은 현장 판매, 체험활동으로는 연잎차 만들기, 연잎쿠키, 연잎비누, 연잎국수 만들기가 있다.
- 주6) 경주신문 2007. 2. 8.
- 주7) 강원도민일보. 2010. 10. 19.

참고문헌

1. 김성귀, 홍장원, 박상우, 2001,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275, 1-170.
2. 농림부, 1996,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1-358.
3. 박재철, 2009, 농촌어메니티 자원분포와 유형별 자원의 특성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7(4), 12-21.
4. 박창석, 전영욱, 조영국, 2002, 농촌어메니티에 기초한 농촌자원 중요도 평가 및 순위적 관계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7(6), 21-35.
5. 손대현 1997, 어촌관광의 개발전략, 관광연구논총 9, 5-13.
6. 오윤경 등, 2007,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3(1), 1-9.
7. 오윤경, 최진용, 배승중, 2008, 생활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어메니티의 지역별 수준 평가,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4(4), 21-32.

8. 안계복, 2005, 신라 동해구와 관련된 학설 분석과 새로운 제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3), 13-24.
9. 안명준 등, 2008, 농촌어메니티 경관의 평가 체계 개발과 적용, 14(2), 77-84.
10. 이상현, 최진용, 오윤경, 배승중, 2010, 지니계수를 통한 농촌어메니티 자원 집중화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6(2), 57-64.
11. 이승우, 2010, 어촌관광의 어촌활성화 기여에 관한 소고, 수산정책연구, 6, 29-48.
12. 이승우, 홍장원, 이윤정, 2008,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477, 1-154.
13. 이승우, 홍장원, 이윤정, 2009,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493, 1-118.
14. 이승우, 홍장원, 한광석, 2004,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346, 1-211.
15. 임창수, 최수명, 김영주, 조영재, 2007, 농촌마을 수준에서의 어메니티 강화 및 저해요소 평가등급체계 구축,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3(2), 27-38.
16. 임형백, 2001, 어메니티의 개념, 기원과 역사,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8(2), 191-199.
17. 임형백, 2002, 어메니티를 이용한 농촌활성화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9(2), 233-245.
18. 조용국, 박창석, 전영옥, 2002, 농촌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2), 157-174.
19. 장은숙, 전영미, 박윤호, 2002, 농촌마을 정비 특성별 어메니티 평가, 한국조경학회지, 30(3), 35-45.
20. 지삼업, 김용재, 이재형, 2005, 어촌 어항을 활용한 해양스포츠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17(1), 86-105.
21. 최병길, 박성수, 2007, 어촌체험관광마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정보연구, 25, 27-52.
22. 홍장원, 2005,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어촌관광사업의 도입과제, 해양수산동향, 1196, 2-10
23. 홍장원, 최승담, 2008,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20(2), 65-85.
24. 황기형, 이승우, 2000,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258, 1-136.

접 수 일: (2010년 11월 25일)

수 정 일: (1차: 2010년 12월 13일, 2차: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23일)

■ 3인 익명 심사필